

회고록

한국고분자학회와 함께 걸어온 40여년

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되고 7년이 지난 1983년 여름에 미국에서 돌아와 1984년 4월에 인하대학에서 열린 춘계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2일 동안 특별강연 5편과 연구논문 35편이 발표되었는데, 본인은 “Poly(vinylidene fluoride)의 Pyroelectricity”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고분자 전공 분들에게 pyroelectricity라는 말과 개념이 생소했던 때였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이 밖에도 전도성 고분자와 광특성 고분자 등이었는데, 이들 분야에 대한 개념도 대다수 회원들에게는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 때문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에 이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회원들의 수가 연구소와 대학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성 고분자의 선구자인 A. J. Heeger, A. G. MacDiarmid 및 H. Shirakawa에게 2000년도 노벨화학상이 수여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분자전자부문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본인이 학회 운영에 참여한 것은, 다른 회원들이 학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신참이지만 나도 무언가 힘을 보태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학회 편집간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태완 교수님께서 학회장을 맡으시면서 전무이사라는 무거운 중책을 저한테 맡겨 주셨습니다. 아직 학회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중책을 맡으니 가끔씩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안태완 회장님으로부터 학회 운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무이사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안태완 회장님께서 IUPAC Macro 1996 한국 유치 Proposal 을 주시면서, Montreal 에서 열리는 IUPAC Macro 학회에 가서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Proposal 은 주로 KAIST 의 김성철 교수께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성철 교수께서 앞서 개최한 국제학회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잉여금을 착수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급히 Montreal 로 가서 일단 운영위원 멤버의 하나인 일본의 사에구사 교수를 만나서 proposal 사본을 한 부 드리고 설명을 한 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뜻밖에 친절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 “But be careful.”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운영 위원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안태완 회장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핑계 댈 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독일 분이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음)을 만나서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안태완 교수님이 보내셨다고 자기소개를 한 후, Proposal을 제출하고 잉여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뜻밖에도 잉여금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Montreal에서 돌아온 얼마 후 우리의 Proposal이 accept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8년 IMF가 한국에 닥치던 해였습니다. 자격도 없는 제가 한국고분자학회 제15대 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무이사는 인하대학의 윤진산 교수께서 맡아 주셨는데, IMF로 인하여 학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진산 교수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학회 살림을 잘 꾸려 나가신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 속도는 다른 학회들에 비하여 매우 빠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들의 빛나는 학술적 업적은 물론 임원진들의 헌신과 학회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업체들의 후원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후성
제15대 회장(1998년)